

결과 보고서

“국제 재난 경감의 날”

재난위험도 경감과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역량 구축
대한민국, 인천, 2016년 10월 11일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100여 명의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이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Making Cities Resilient, 약자로 MCR)” 캠페인과 이를 위한 10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 배움으로써 재난에 강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UNISDR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 10가지 필수 조건은 재난위험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선다이강령을 강화하기 위한 확인사항이다. 2015년 3월,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가입국들이 재난위험도 경감과 복원력 증가를 위해 이 강령을 채택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2016년 ‘Live to Tell’이라는 주제로 2016년 국제 재해 경감의 날을 기념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전세계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선다이강령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사회적 재난과 재난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했다.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이 UNISDR ONEA-GETI 직원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

인천광역시의 재난위험도 경감

인천광역시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홍수와 폭풍이며, 이들의 슬로건은 “대비하고, 인식하고, 준비하라”이다. 대한민국 도시 복원력 발전과 실행 계획은 자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홍수 관리, 중앙 정부와의 협동 프로젝트, 다목적 발전 프로젝트, 여러 위험요소의 경감을 위한 접근법, 대비와 초기 경보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먼저 진행자는 UNISDR 과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재난위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인 재난위험, 위험요소, 복원력과 위험에 대한 노출 등에 대한 정의, 센다이강령과 지역 차원에서의 실행의 중요성, 10 가지 필수조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진행자는 10 가지 필수 조건을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재난위험도 경감의 실행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국민안전처의 박일웅 과장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소방상황센터의 남조형 소방위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대하여

“복원력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센다이강령의 이행을 돕기 위한 안내와 필요 요소들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결과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재난 경감, 센다이강령, 강령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의 재난 관리 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과 대한민국 행정기관들의 협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공약의 일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센다이강령 이행에 있어 시 관계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